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2일 개막

47개국 443명 참가... 27·28일 5·18민주광장서 결승 경기
휠체어석 등 장애인 접근성 대폭 강화·포용적 대회 실천
세계양궁대회 이어 연속개최... 국제스포츠도시 위상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7개국에서 44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리크브, 컴파운드, 중증장애(W1), 시각장애(VI) 등 4개 부문에서 17개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지난 12일 성황리에 폐막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이은 연속 개최로, 광주는 이탈리아 토리노와 네덜란드 스펜트르헨보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도시가 됐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국내 개최는 2007년 청주 이후 18년 만이다.

경기는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은 광주국제

양궁장에서 열리며, 결승전은 27일과 28일 주말 이틀간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대한민국에서는 20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광주광역시청 소속 윤태성(컴파운드) 선수와 김옥금(W1)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옥금 선수는 이번 대회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의 감동을 나눌 수 있도록 포용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승 경기장 A·B석을 휠체어석과 배려석으로 개조해 장애인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5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마련했다. 또한 참가 선수단을 위해 휠체어 이용 특장차량과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한다.

경기 관람은 전면 무료다. 결승 경기는 오는 24일까지 '인터파크 놀(NOL)'을 통



해 사전예매할 수 있으며, 잔여 티켓은 경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조직위는 양궁기술 저개발국가지원(ODA)을 위한 프로그램과 친환경대회 운영도 지속한다. 이번 대회에는 페루, 우간다 선수 2명에게 양궁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 포용과 나눔의 스포츠 정신을 실천한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도시로서 스포츠 분야에서 그 가치를 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대회기간 동안 공식 인스타그램(@gwangu_2025)을 통해 응원 댓글 이벤트와 현장인증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강진 출신 김재현, 세계랭킹 도약 발판 마련

말레이시아 국제배드민턴대회 혼합복식 우승

강진군 출신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재현(24) 선수가 해외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계의 자부심을 높였다. 강진군배드민턴협회 김강석 부회장의 아들인 김재현 선수는 계림초, 전대사대부고를 졸업하고, 2021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 열린 '2025 PETRONAS 말레이시아 국제시리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과, 남자복식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김재현 선수는 혼합복식 결승에서 장은서 선수와 호흡을 맞춰 노진성·이예나 조를 상대로 21-8, 21-18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다. 또한 남자복식에서는 이상원 선수와 함께 결승에 진출해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파위 마사위·홍 관 조와 폴세트 접전을 펼친 끝에 1세트

를 따냈으나, 아쉽게 1-2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김재현 선수가 국제대

회에서 두 종목 모두 결승 무대에 오르며, 복식과 혼합복식에서의 잠재력을 동시에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주관하는 국제시리즈(International Series)로, 우승자에게는 2,500점, 준우승자에게는 2,130점의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김재현 선수는 혼합복식에서 2,500점, 남자복식에서 2,130점을 획득해 향후 세계랭킹 상승과 국제무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강진군은 김재현 선수의 이번 성과를 지역 스포츠 육성 정책의 결실로 평가하며, 배드민턴을 포함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청년이 국제무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은 큰 자랑"이라며 "더 많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유소년 훈련 환경과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대투수' 양현종이 꾸준함을 무기로 KBO리그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양현종은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삼진을 잡아냈다.

1회초 NC 선두타자 권희동에게 안타를 맞은 뒤 1사 2루에 박건우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실점과 함께 위기를 맞은 양현종은 맏 데이비슨은 뜬공으로 돌려세운 뒤 이우성에게 삼진을 잡아냈다.

KIA 양현종, 11시즌 연속 100K... KBO리그 역대 최초 대기록

NC 이우성 삼진으로 잡고 시즌 100K 채워

마지막 삼진으로 양현종은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것은 물론 KBO리그 탈삼진 기록까지 세웠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99탈삼진을 기록 중이었던 그는 1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시즌 100탈삼진을 채웠다.

이로써 양현종은 11시즌 연속 100탈삼

진 고지를 밟았다. 이는 KBO리그 역대 최초의 대기록이다.

2007년 KBO리그에 데뷔한 양현종은 2009시즌 삼진 139개를 잡아내며 데뷔 첫 세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했다.

그리고 양현종은 2014년을 시작으로 매 시즌 세 자릿수 탈삼진을 작성했다.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2021년을 제외

하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시즌 연속 120탈삼진 이상을 기록했다.

10시즌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 기록도 양현종과 이강철(전 해태 타이거즈), 장원준(전 두산 베어스) 등 3명이 가지고 있는 진기록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21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송진우(2084개)를 넘어 KBO리그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 보유자가 된 양현종(2175개)은 매 경기 이 부문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입 운영 3년 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세입 GS 건설
CS 건설
CS 건설
CS 건설
CS 건설
CS 건설
CS 건설

배드민턴 안세영, 중국 마스터스 결승행... 남북·여복도 우승 도전

야마구치에 2-0 완승...중국 한위와 결승서 격돌
남북 서승재-김원호, 여복 김혜정-공희용도 낭보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 결승에 올랐다.

안세영은 20일 중국 선전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4위·일본)와의 대회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2-0(21-10 21-14)으로 이겼다.

안세영은 김가은(삼성생명)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세계랭킹 3위 한위(중국)와 21일 우승을 다툰다.

안세영은 1게임에서 야마구치에 단 10점만 내주는 완승을 거뒀고, 2게임에서도 공수에서 압도하며 39분 만에 경기를 끝냈다.

지난달 안세영은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탈락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중국 마스터스를 통해 약 한 달 만에 다시 국제 무대를 밟은 안세영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아울러 올해 7번째 우승까지 한 걸음만 남았다.

안세영은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슈퍼 1000), 인도오픈(슈퍼 750), 오를레앙 마스터스(슈퍼 300), 전영오픈(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슈퍼 1000), 일본오픈(슈퍼 750) 정상에 등극했다.

같은 날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는 파자르 알피안-무함마드 쇼히볼 피크리(인도네시아·세계 76위) 조를 2-0(21-13 21-17)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두 선수는 세계 7위인 사트위사이라즈 란키레디-차라그 셰티(인도) 조와 격돌한다.

김원호-서승재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슈퍼300),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까지 6승을 기록 중이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6위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는 류성수-탄닝(중국·세계 1위) 조를 2-1(21-18 21-21 21-19)로 꺾고 준결승을 통과했다.

김혜정-공희용은 지난 7월 중국오픈(슈퍼1000) 준결승에서 류성수-탄닝에 패배하며 탈락했던 아쉬움을 이번 승리로 말끔히 해소했다. /뉴시스